

74
니부터
2013 겨울호



퍼넛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넛이 백미순 퍼넛날 2013년 12월 31일 만든지 나눔터 편집팀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121-897)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나눔터」는 디자인이즈의 제공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u>4</u>	<u>기획특집 : 내 삶의 활력소, 춤</u>
5	벨리댄스는 사랑의 묘약
8	춤은 나의 인생
12	안녕하세요, 춤추는 한의사입니다
14	매종 드 상담소
<u>16</u>	<u>삶의 돋보기</u>
16	자, 이제 댄스타임 5인5월(日)
20	뜨개x바느질행동단 '강정의코' 일요코행동에 가다
<u>24</u>	<u>만나고 싶었습니다</u>
25	무용가 조희경
29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소장 권인숙
<u>33</u>	<u>문득 떠오른 질문</u>
33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u>37</u>	<u>열린터 이야기</u>
37	수박은 달았다
40	열린터 다이어리
<u>42</u>	<u>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u>
42	또 하나의 만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예비의료인을 만나다
<u>45</u>	<u>상담소의 밥상</u>
45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 2
<u>48</u>	<u>똥대! 상담소</u>
<u>50</u>	<u>나눔과 참여</u>
50	회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더욱 튼튼해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u>53</u>	<u>훈훈한 기부</u>
<u>54</u>	<u>아낌없이 주는 나무</u>

내 삶의 활력소, 춤

누구나 대체로 좋아하면서도 막상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것, 춤!

춤의 사전적 정의는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입니다.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놀다니,

이 한 줄만 읽어도 흥이 일어나 몸이 절로 움직이지요?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각양각색 춤세계에 푹 빠진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상희님은 벨리댄스, 유리화영님은 아이리시댄스, 도희님은 즉흥춤을 소개합니다.

춤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춤꾼'들의 이야기가,

자칫 지치고 웅크리고만 싶어질 수 있는 이 겨울,

우리에게 싱그러운 봄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벨리댄스는 사랑의 묘약

박상희 | 본 상담소 회원, 전 상담활동가

그즈음 나는 암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치료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과가 좋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룰루랄라인 상태였다. 동네 커피숍에 앉아서 사장님과 무슨 운동이 좋을까, 헬스는 지겹고, 뛰는 건 못하겠고, 건강관리를 위해 뭐든 하긴 해야 되겠다고 얘기 중이었다. 그때 연세 지긋하신 우아한 어르신이 커피숍에 들어오셨다. 우리 얘기를 들으시더니 가방에서 보석이 박힌 공연복을 보여주셨다.

나 : “이게 뭐예요?”

어르신 : “나 벨리댄스 하는데 이런 거 입고 해. 옆에서 수업하니까 한번 구경 와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벨리댄스 수업을 보러 갔고 나는 신나는 음악에 매료되어 그 즉시 벨리댄스와 사랑에 빠졌다.

두 아이를 키우는 나. 주부로 살림하는 나도 나고, 잠깐이지만 무대의 나도 나다. 평범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이다. 아마추어로 시작할 때도 내 마음은 언제나 프로였다. 늦게 시작했으나 인생의 상처를 알고 적절히 치유도 된 지금 나는 남의 인생 들러리가 되어 살기 싫어졌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벨리댄스는 나에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는 사랑의 묘약과 같다.



일상에서 받은 영감을 벨리댄스 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일은 정말로 재미있다. 멋진 영화음악을 듣다가도 동작이 떠오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도 군무로 표현하고 싶고, 김연아의 아름다운 아이스 쇼를 보아도 춤이 떠오른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표현하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 나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서 정말 좋다.

벨리댄스는 한국 사람에게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집트 터키 지방의 민속 무용에서 유래했고 주된 동작이 인체의 관절로 원, X자, S자, 직선을 만들고 스텝과 턴을 이용해 연결해 추는 춤이다. 댄서의 개성에 따라 우아하게, 때로는 귀엽게, 섹시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춤을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 더 행복해졌고 조금 더 젊어졌으며 조금 더 생기가 생겼다. 이렇

게 좋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벨리댄스를 퍼뜨려 내 모든 대화는 “기승전벨” 이 되었다.
 (*기승전벨 대화의 결론이 모두 벨리댄스로 귀결된다고 남편이 지어준 별명)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출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서 홍신자 선생님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실 때 찾아가서 여쭙보았다. 홍신자 선생님은 웃는돌 공연단을 이끌고 있는, 손꼽히는 현대무용가다. 그 분은 내 손을 잡더니 웃으며 “SPIRIT” 이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셨다. 영혼이라니, ‘영혼’, 춤이 영혼을 표현하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달래주는 데 효과가 있구나. 선생님의 말씀을 나는 나름으로 해석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춤을 췄으면 좋겠다.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면 할말은 없지만 춤이 분명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성폭력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가해자에게 따지고, 상담을 받는 일련의 활동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폭력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나?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전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기를 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주변에 내가 놓치던 재미있는 일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굳이 벨리댄스가 아니어도 좋다. 집 주변을 돌아보면 각종 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춤을 가르쳐주는 곳이 많다. 라인댄스,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조금씩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 보자. 해보지도 않고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다. 나도 내가 춤을 추며 살게 될 거라고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재미있는 거라 생각한다.

사실 인생이란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깝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스펙을 쌓거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 했다면 서른이 넘은 나이에 춤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영혼의 소리를 따라 춤을 선택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 교육을 받을 때도 영혼의 소리에 따랐던 것이고 그 선택을 후회해본 적은 없다. 지나보면 영혼의 소리를 따랐을 때 내 삶은 한층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춤을 안 춰도 시간은 간다. 나는 이왕 가는 시간 즐겁게 춤추며 지내기로 했다.

※ 박상희 /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를 상담과 벨리댄스를 통해 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프로안무가를 꿈꿉니다.



유리화영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얼핏 제목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거나 댄서?”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일랜드 전통춤, 아이리시댄스(irish dance)를 춘다. 간혹 나의 사생활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매우 쑥스러워하면서 ‘아이리시댄서’라고 소개할 때도 있다. 춤을 잘 춰서 댄서라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는 이 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고 출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가끔은 아이리시댄서라고 소개한다.

아이리시댄스를 추기 전 나의 춤 이력은 꽤나 넓고 얁다. 탭댄스를 하는 친구를 따라 갔다가 댄스보다는 사람들에게 정들어서 남고, 또 어찌다보니 같이 하던 사람들 모두 아이리시댄스로 종목을 바꾸어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탭댄스에서 아이리시댄스로 옮겨가면서 한 시간이 벌써 9년! 아이리시댄스는 내 인생에서 넓고 얁은 취미에 깊이를 준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잠시 발이라도 살짝 담갔던 취미는 뭘까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소개하면 초등학교 때 CA시간에 들어갔던 무용반을 시작으로 춤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됐고, 중학교 때는 잠시 동네오빠들과 어울려 노는 재미에 태권도에 마음을 빼앗기기

도 했다. 암울했던 고등학교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자 온갖 것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중 마음을 제일 사로잡은 것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새터 공연이었다. 잠결이었지만 너무도 처절한 문둥이의 몸짓에 탈패에 들어가서 꼭 저 춤을 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를 움직인 것은 고성오광대의 1과장에 “문둥이 춤”. 누가 추는지도 모르고, 그 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지만 춤의 처절함이 와 닿았다. 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선 매우 허탈했으나 그래도 그 춤은 나를 움직였다.



여성의전화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더욱 나의 욕구에 충실해졌다. 욕구에 충실한 인간이 되고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을 주기로 새로운 것에 심취했다. 재즈댄스를 시작으로 뮤지컬학교에 들어가고, 재즈댄스, 발레, 현대무용, 판토마임, 스윙댄스, 그리고 탭댄스와 아이리시댄스까지. 정말 다양한 취미를 즐겼던 것 같다. 춤마다 특성이 있지만, 음악과 어우러지는 가운데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고, 댄스에 따라 다른 모양, 전에 없던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

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 재즈댄스를 하면서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을 들였던 것 같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유연성을 잃어가는 내 모습을 알아차리면서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리시댄스를 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자매애를 배운다. 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리시댄스의 멋과 재미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서로의 소리와 움직임을 배려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상대의 호흡에 맞춰 발소리를 내고, 춤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을 한다.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큰 숨이 쉬어지고, 나도 모르게 표정



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공연을 위해서는 가끔 표정 관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춤을 추면서 말하기 힘든데도 말을 하고 있었다. 공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줄을 맞추라는 말도 하게 되고, 박자를 맞추라는 말, 심지어 관객에 대한 얘기까지 춤을 추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하

고 있는 셈이다. 아이리시댄스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TAP風”친구들과 몸으로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된 것이다.(첫 시작을 TAP風에서 했고, 지금까지 9년간 쪽 함께 하고 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면 아이리시댄스는 ‘리버 댄스’나 ‘로드 오브 더 댄스’로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모 전자회사의 TV광고에서 나온 적이 있다. 춤은 크게는 소프트댄스와 하드댄스로 나누는데 소프트댄스는 발레와 조금은 비슷하지만 춤이 가진 느낌은 매우 절도 있고 힘 있어 보인다. 하드댄스는 소리가 나는 신발을 신고 추기 때문에 아이리시 탭댄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탭댄스와는 다르다. 탭댄스의 시초가 되는 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여러 명이 나와서 일치된 동작으로 같은 발소리를 내며 춤을 추거나 한두 명이 신기에 가까운 동작을 선보이기도 한다. 장르의 춤이지만 영국에서는 익스트림스포츠라고 분류한다고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도전의식을 자극하기도 한다. 춤은 상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추며,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 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점프 동작이 많기 때문에 전신을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상체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놀이와 즐거움을 다 제한해서 춤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상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아이리시댄스를 하면서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단순한 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어찌면 호기심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했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엔 안정적인 공간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니 알려



주는 대로 배웠고, 그것에 안주하는 때도 있었다. 선생님이 유학을 갔을 때는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고, 안무를 짜고, 수업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매우 다양해졌다. 한국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임과 교류하면서 아이리시댄스를 공연하기도 하고, 여성의전화나 다른 단체들의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할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아이리시 음악을 하는 동호회와도 만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엄청난 실력의 아이리시댄서들은 5살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넘으면 은퇴하거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프로가 된 사람들이다. 서른 살이 넘어서 시작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춤을 추려는 게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걸을 수만 있으면 춤을 춘다고 한다. 그건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생활의 즐거움, 흥을 잊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아이리시댄스를 통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변화하게 되고, 일상의 즐거움을 잊지 않게 되었다. 나의 발랄함이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길 바라기도 한다.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계획 중이다.

※ 유리화영 / TAP風이 궁금한 분들은
<http://cafe.naver.com/tappung> 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한의사
입니다

도희 | 본 상담소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한의사 도희입니다.

벌써 즉흥춤을 춘지 10년이 넘었네요. 낮에는 진료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에 시간을 내어 즉흥춤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한 달에 한번 즉흥잼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은 대학교 다닐 때 몸의 근육이 마비가 되어 다른 움직임 할 수가 없었을 때 방에서 그저 몸을 이리저리 내 맘대로 비틀며 움직였던 것이 막춤이 되고 지금의 즉흥춤이 되었네요.

우선 현대무용 중의 '즉흥춤'은 쉽게 표현하면 '막춤'이지요. 춤을 추는 일정한 형식 없이, 특정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대로 몸을 맘대로 움직입니다. 음악에 맞추거나 음악없이, 비슷한 동작이 반복되거나 또는 막춤이 어색한 분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작은 팁으로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주시지요.

일단 내 맘대로 한바탕 신명나게 춤추기에 온갖 스트레스를 한 큐에 뺏~. 몸도 상쾌, 마음도 상쾌해지네요. 그리고 한바탕 몸의 에너지가 순환을 하고 그만큼 땀도 쏟아내기에 몸 안에 쌓였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몸의 에너지가 말끔히 정렬되기도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동작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그 리듬에 맞게 움직이기에 막

혔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원래의 상태로 재배치가 일어나는 셈이지요. 딱딱했던 어깨가 풀리고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고 뻣뻣했던 허리가 어느새 구부러지기도 하는 등등.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굳어 있던 근육들이 춤으로 새 생명을 얻은 셈이니 참 고마운 춤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만큼은 나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네요.

평소 활동의 대부분이 앉아 있거나 잠시 걷거나 서 있거나 하여 나의 어깨, 팔꿈치, 엉덩이, 허벅지, 발가락 등 일상에서 사용이 드문 부분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즉흥춤을 추다보면 몸 곳곳이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고 청각, 후각, 시각 등의 감각도 움직임에 중요한 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오감이 열리고 몸의 작은 부위들이 펄펄 살아나게 되는 셈이지요. 눈을 감고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여도 보고 팔꿈치가 주인공이 되어 팔꿈치로 온 공간에 그림을 그리며 춤을 추기도, 슬픔을 몸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봄을 상상하며 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세 사람이 같이 춤을 추면 서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매우 섬세히 반응하며 순간의 교감으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 갑니다. 즉흥이라 미리 맞추어 놓은 각본이 없기에 같이 움직이는 순간, 서로 어떻게 교감하느냐에 따라 천태만상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짜릿함이 있네요. 움직임을 통해 섬세히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쯤이면 예상이 되시겠지요. 무엇이든 즉흥적으로 몸을 통해 상상하고 표현되며 교감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무궁한 즉흥춤의 세계에 빠져 보지 않으실는지요. 지금은평구 살림의료생협 안의 “불어라 춤바람” 소모임에 접속하시면 바로 즉흥춤의 마력에 매료되실 거예요.

※ 도희 / 춤추는 한의사, einestoneee@hanmail.net

메종 드 상담소

2013 한해보내기를 앞두고 춤 연습에 한창이었던 활동가들!
회원님께 웃음을 드리는 공연을 위해 춤에 퐁당 빠져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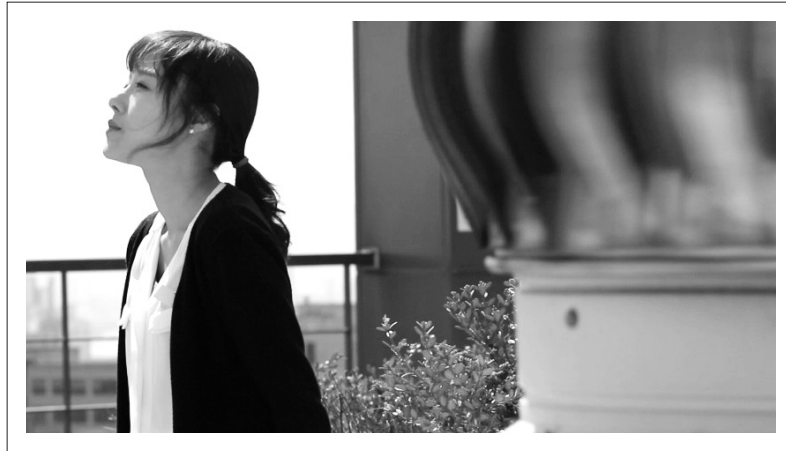




자, 이제 댄스타임 5인5월(日)

시놉시스

2009년 대한민국,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시술한 병원과
동료의사들을 고발하는 사건으로 떠들썩해진다.
이를 계기로 종교, 시민단체, 각종 협회들은 성명서를 내고
언론 또한 물 만난 마냥 연일 보도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산스런 움직임에 가려져
드러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용해진 듯 보이는 몇 년 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란
한 장의 웹자보를 본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 선다.
평범한 직장인, 교직에 있는, 곧 학부모가 될,
아직 학생인 그녀들.
찬반 논란에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경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과거로 간다.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다큐멘터리 82분 | 컬러 HD | 2013

프로듀서 강유가람 | 연출 조세영 | 촬영 손경화 | 조연출 박소현

공감지수	감동지수	교육효과	설령당먹고싶게함	흥행예감
★★★★☆ 맥주	★★★★☆ 맥주	★★★★☆ 맥주	★★★★☆ 맥주	★★★★☆ 맥주
★★★★☆ 영	★★★★☆ 영	★★★★☆ 영	★★★★☆ 영	★★★★☆ 영
★★★★☆ 토리	★★★★☆ 토리	★★★★☆ 토리	★★★★☆ 토리	★★★★☆ 토리
★★★★☆ 잇을	★★★★☆ 잇을	★★★★☆ 잇을	★★★★☆ 잇을	★★★★☆ 잇을
★★★★☆ 정희	★★★★☆ 정희	★★★★☆ 정희	★★★★☆ 정희	★★★★☆ 정희

<자, 이제 댄스타임> 300자평

맥주

사실 환풍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찍어서 마치 쇠날에 갈리는 듯한 느낌을 준 줌인 화면, 뮤직비디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환상 속의 시술 장면, 얼굴이 뿌옇게 처리되었다가 하늘 개뿔 맑아지는

효과를 준 것 등 여러 시도들에 더 눈이 갔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시도들이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기보다 '도중'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임신중절을 다른 다큐에서 이런 길 잃음은 대견하게 느껴졌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열심히 걸길로 섰던 것. 그 길이 언젠가는 합쳐질 거라고 믿는다.

영

'자, 이제 덴스타임'이라는 제목과 함께 달팽이와 춤추면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나는 이 장면을 '낙태를 둘러싼 담론들을 심각하고 무겁고 어두운 사회적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 여성이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몸에 대해 집중하는 댄스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상징적 의미로 나를 해석해 보았다. 논란으로 떠들썩한 세상과 달리 낙태를 고민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 영화가 그 소리에 확성기를 대고 사회를 향해 첫 마디를 외쳐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해 보인다.

들

낙태는 성문화, 여성혐오, 성별화된 의료 권력 등 많은 사회 이슈들이 겹쳐있는 문제이지만 수술 받은 여성 당사자의 경험으로만 환원된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여성 당사자들의 낙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성공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다. 영화 내내 생존자말하기대회를 생각했다. 어떤 경험도 그 사람의 성별이나 다른 사회적 위치를 이유로 (무거운 족쇄를 찬 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헤엄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성적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보다 낙태를 둘러싼 경험들을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더 막막하다.

Let's Dance

잇을

긴장됐다.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물론 형체 없는 것이지만)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자이크가 한 사람씩 벗겨지는 장면의 감동은 다른 관객들에 의해서도 거듭 언급됐다. 모자이크는 대개 어떻게 사용되는가. 모자이크로 가려지고 '싫은' 사람은 없지만 모자이크로 가려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모자이크는 특정 경험이나 정체성이 낙인이 되고 삶을 위협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자이크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회의 책임회피, 사회의 외면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건강, 여성의 삶,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내 가까이 있는 이들과 대면해서 하자.

정희

작게 소곤소곤대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뿔뿔이 퍼졌다.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얻게 된 간접 경험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당연시했던 나에게 이 영화는 낙태로 얻게 되는 죄책감과 상처의 무게가 작지 않음을 알게 해주었다. 불법이므로 숨겨야 했던 여성들의 낙태 이야기가 대중에게 소개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낙태는 불법이 아닌 여성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주장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낙태가 여성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사회라면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를 숨기지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뜨개X바느질행동단 '강정의 코' 일요코행동에 가다

잇을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나의 코 세계 입성기



일요일 오후 대한문 앞은 북적인다. 그곳에서 나와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한 토리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다. 당연한 일이다. 수문장교대식이라도 하는 중에는 어림도 없다. 나는 간소한 쌍차 분향소 곁, 매표소 앞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냈다. 웅크리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웅크린 듯이 보였다. 출선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갑갑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든 편안하게 내주는 듯자리 한 귀퉁이에 앉았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코바늘이 처음인 난 긴장해서 어깨가 한껏 딱딱했다. 옆 사람은 전에 한번쯤 해봤다고도 하지만 이거이거, 해

매기는 서로 똑같다. 하지만 일일 뜨개선생님의 “벌써 그만كم? 아주 잘하네요!” 라는 따스한 칭찬은 코바늘을 춤추게 했다. 같은 질문을 서너 번씩 하고 실이 엉켜 도움을



강정의 코 지난여름 강정마을에 다녀온 사람들이 강정마을에 현수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각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낡은 것을 보고 다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에서 했던 뜨개질을 기억하고는 강정마을에도 이러한 손노동을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바느질과 뜨개질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좁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이어 붙일 수 있어 개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움직임을 시작해왔다. 반 년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모여 뜨개질을

지속하면서 '코'가 늘어났고, 마포구, 덕소, 원주 등에 지역 기반 뜨개모임도 생겨났다.

“뜨개 편물의 기본단위를 ‘코’라고 부르는 것, 그물망 같은 연대의 하나하나의 그물‘코’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 뜻에서 <강정의 코>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름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정의 코가 되자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연대와 공동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 타인의 문제들에 우리 스스로가 ‘내 코가 석 자’라는 핑계로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코가 석 자쯤 빠진 것은 당연한 사회이니 그 코들이 모여서 연대하자는 중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정의 코>가 되기로 했습니다.” (강정의 코, <http://knitnoses.tumblr.com/>)

요청하며 주춤하는 내게, “금방 잘할 수 있어요”라며 격려와 미소도 아낌이 없다. (나의 첫 연습작품은 왕관을 닮았다. 기쁘게 머리에 써보니 토리는 날 좀 안쓰럽게 보는 듯했다!)

뜨개질에 진작 도가 터버린 다른 이들은 연구에 이르렀다. 번갈아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주며 더 어려운 패턴에 도전했다. 즉석에서 끼어든 이에게는 여분의 코바늘을 기꺼이 빌려주기도 하고, 들러서 실만 보태주고 가는 이도 있다. 시장에서 싸게 사온 두툼한 실타래를 두 사람씩 다시 감기도 한다. 한 사람은 두 팔에 걸고 한 사람은 풀면서 손에 감아간다. 이 단순하다면 단순한 일에 있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다. “실을 무릎에 올려놓으면 따뜻할 거야, 이렇게 해봐요” 조언도 해준다. 두툼한 목도리에 담요도 필요한 날씨, 야외에 앉아있기가 쉽지만은 않고 손도 시리다. 가끔 손을 놓고 잠시

따뜻한 차를 나눠마셨다.

대한문은 참 이상한 공간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수문장교대식. 들뜬 관광객들. 건너편의 시청광장은 축제가 한창이다. 이 즐거움을 장식하기 위한 용도인 듯 꽃도 화단에 가득 피어있다. 누구도 화단을 경찰이 종일 지키고 서있는 이유

를 묻지 않는다. 경찰차가 왜 있는지도. 간소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분향소가 왜 이 길 위에 있는지도. 하필 스피커 바로 앞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곧장 받아내야 한다. 돛자리도 맘대로 못 펴는 이곳도, 저곳 시청광장도, 광장이긴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형형색색의 실은 중요한 외침 같다.



이곳에서 쌍차 농성장이 불탔을 때, 자발적 행동단은 ‘이어붙이는 농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뜨개질을 해 농성장 꾸미기를 했다. 뜨개현수막이 나무 사이에 매달린 것을 봤을 때의 기뻐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경찰에 뜨개편물을 두 차례 빼앗겼고, 경찰과 마찰도 겪게 되었다.

조용하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 작은 행동이지만 대한문에서 일을 벌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버린 이곳 대한문에서 뜨개질을 계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더 특별하다. 어찌면 실을 짜고 엮는 이 자리와 시간, 만남들이 더 의미 있다. 뜨개질을 하는 서로의 생각도 교차하는 실처럼 교환되는 시

간, 서로의 실이 섞이며 서로의 무늬가 된다.

나는 인상을 쓰며 낱뽕대다 어느새 함께 뜨는 재미에 중독되고 말았다. “파는 거예요?” 라고 행인들이 질문해올 때면 이 일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닿기를 바랐다. 짧은 해가 이리 아쉽다니, 어둑해지자 근처로 이동해 나와 다른 몇 사람은 남은 실을 다 떠버렸다. 며칠 뒤에는 실을 사서 상담소 활동가들과 나눠뜨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뜨개질의 재미에 빠진데다, 이 편물이 쓰임새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멈춰지지 않는다. 상담소 뜨개질중독자들(정희, 유영, 나)은 실을 서로 조달해가며 툼툼이 떠댔다.

뜨개질 ‘줍’ 할 줄 알고 바느질 ‘줍’ 할 줄 아는 개인들이 알음알음 모이고 모여 수백 장의 편물을 만들어냈다. 4개월여의 직접행동으로 만들어진 수백 장의 뜨개편물은 12월 중 강정마을 나무와 공사장입구 등을 감싸도록 설치되었다. 다시 그곳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의 눈길이 한 번 더 머물기를 바라며.

※ 잇을 / 뜨개질중독자, 하지만 뜨개질보다 상담소와 더 긴 시간을 보내는 이제 막 ‘활동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무용가 조희경 님과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님입니다

interviewer_란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interviewer_맥주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7회,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함께 한



무용가 조희경

성폭력통념을 깨는
새로운 연구활동을 펴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권인숙

「 7회,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함께 한

무용가 조희경

interviewer_란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올해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이었습니다.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 사전워크숍(몸 이완 워크숍)을 진행하고,
본대회 당일에 지지무대도 함께 구성해주셨던 조희경님을 만나
성폭력생존자들과의 만남의 의미와,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과정에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조희경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래요?

Q 조희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모르는 회원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 이름은 조희경이고요 (웃음). 무용가입니다. 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Q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A 상담소 전 활동가였던 이산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007년에 제가 움직임 워크숍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산이 참여자로 왔어요. 그때 만나서 친분이 있게 되었고 간헐적으로 연락하다가, 2007년 사전워크숍이 좋은 점이 있어서 2010년에 생존자 말하기대회 사전워크숍 강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죠.



Q 7회 때 처음 성폭력생존자들과 몸을 이완시키는 사전워크숍을 하신 건데, 당시 강사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A 7회 말하기대회 기획이 노래로 공연을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말하기참여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몸을 편안히 하고 움직이는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해서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별로 정보가 없었어요.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성인대상의 몸 워크숍 의뢰받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회기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대상, 피해생존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7회 사전워크숍을 진행한 공간이 4층 정도 되는 연습실이었는데, 누워서 하는 동작을 했거든요. 워크숍을 다 진행하고 나서 말하기참여자들하고 어땠는지 소감을 나누는데 참여자 중에 한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1층에서 타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작업을 하는 아저씨들끼리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거슬렸다고 했어요. 거슬린다는 것은 어떤 연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저도 그날 진행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예민하고 감수성 있게 봐야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하면서 발견해가는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예민함, 감수성이 부족했는데 7회 말하기참여자가 이번 10회 사전워크숍 강사로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외였고, 감사했어요.

Q 이번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도 사전워크숍을 해주셨어요. 7회에 이어 두 차례나 사전워크숍 강사로 함께해주셨는데,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셨나요?

A 시작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 분께도 걱정이 많다고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피해생존자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7회 말하기참여자 한 명이 친족성폭력피해자가 직접 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한 3일 동안은 마음이 막 두근거리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몸 워크숍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몸 워크숍은 몸을 다루는 건데,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다루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다루는 거잖아요. 몸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 자연치유력 같은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 저는 옆에서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몸은 정말 현명하고 신비로워서 이 몸은 되고 다른 몸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다루는 워크숍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고,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생각했어요.

Q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는 본대회 당일 지지무대도 구성해주셨는데요, 워크숍 진행 이외에 당일 무대에 함께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A 당일 지지무대 구성 제안을 받고, 아마 제가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답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을 텐데, 5개의 말하기를 내가 다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말하기참여자의 말하기를 듣고 창작을 해서 무대를 서는 거라서 고민을 하다가, 무대에 서게 된다면 남성과 함께 무대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사회 안에는 반반이 있고, 조화롭게 삶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남 구성이라 어떤 기억을 연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동작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했어요. 세상에 두 가지 성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함께 무대를 구성했던 이정민 무용가는 명상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삶에 대한 성찰이 깊은 분이어서 제가 하게 된다면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일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말하기참여자들이 먼저 말하는 작은 무대가 있었고, 그 말하기를 바탕으로 창작을 했고, 그걸 또 말하기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 과정 중에서는 오히려 매번 굉장히 큰 배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여-남 사이의 동작을 보고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통념들이 깨지는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배움이라는 게 예술가들이 선물을 준다는, 일방적으로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주는 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말하기참여자들에게 받은 게 더 많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준다는 게 아니라 말하기참여자와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진심은 다 전해진다고, 정말 작업을 하고 있구나, 말하기참여자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걸 무대에 구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Q 마지막으로 상담소나 회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A 사실 처음에 저는 사회적인 의미로 사전워크숍 강사에 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수업을 제안 받아서 한 거였는데,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말하기참여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같아요. 말하기참여자들이 변화해서 그게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대에 선다는 건 나를 외부화하는 작업인데, 그건 나를 이해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실제로 행하는 게 마지막 무대에 서는 거고요. 그건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해오고 있는 상담소는 정말 보면 볼수록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절이 많았던 조희경 선생님과 달리 7월, 10월 말하기참여자들은 몸 워크숍이 너무 너무 좋았다는 호평을 해주었습니다.

생존자의 말하기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해주신 조희경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폭력통념을 깨는 새로운 연구활동을 펴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권인숙



interviewer_맥주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이 지난 10월 개소했습니다.
'울림'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변화와 새로운 담론 생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활동과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출판 활동,
성폭력에 맞서는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등으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울림' 연구소장으로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신
권인숙 소장님을 회원님들께 소개합니다.

Q 상담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2003년에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그때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인연이 만들어졌고요. 2010년에 성폭력 두려움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함께하게 되었죠. 상담소를 들락거리면서 연구를 계속했

고, 제가 쓴 글들을 상담소 활동가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새로운 논의로 받아주셨어요. 상담소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를 해나갈 수 있었고 인연이 좀 더 깊어졌죠.

Q 연구소 소장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사실 성폭력 두려움 연구를 하면서, 연구 역량으로 상담소에 기여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50대가 되는데, 50대에는 제 수준에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소는 일할 가치가 있는 단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탄탄할 뿐만 아니라 여성적 지도력이 경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느낌도 들었고, 구성원의 능력이나 판단력, 관점도 그렇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단체로 느껴졌어요. 도울 수 있다면 도울 부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상담소와 반성폭력운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와 함께 했을 때 학자 개인이 결과물을 내는 것과는 달리, 훨씬 실천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사회적 의미가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Q 상담소와 '같고 또 다른'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A 상담소라는 곳이 명칭은 상담소지만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을 이끌어왔고, 연구 성과도 제시해왔던 단체죠. 각종 성문화운동도 주도해왔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담소와 연구소가 서로 결합력이 떨어진다는 건, 일하는 양식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보다 더 연구라는 일을 특화하고 전문화해서 투자하고 여유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와 연구소의 지형 차이라기보다는 연구소가 연구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성 있게 파고들 것인가, 또는 상담소의 활동에 더 많이 결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즉 연구소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설명해나가야 하는 면은 있겠죠. 물 흐르는 대로 하자는 마음이 있어요.

Q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접근은 시민단체의 접근과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A 시민단체는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도화에 대한 고민도 되죠.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고 있고, 사회가 아직 성폭력 통념에 지배받고 있으니까요. 사회 인식을 변화해내는 데 상담소의 운동과 연구의 의미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성폭력은 문제다’라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선정적인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분노하고 있지요. 분노는 있는데 실제 주변에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겹다, 성폭력 얘기’, ‘불필요한 고소나 불필요한 문제제기가 너무 많다’는 식의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죠.

Q 연구소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A 피해자다움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를 통해 기존의 ‘피해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사회통념을 극복하고, 성폭력피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보면서, 현실을 직면하는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보려고 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모습이고’ 라는 기본 구도들이 있잖아요.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담론 생산이 목표죠.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터뷰와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폭력피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성폭력피해가 구성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성폭력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가 성폭력피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루어보려고 해요. 성폭력피해에 대한 당연한 전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해체해보겠다는 의도가 크죠.

성폭력피해자 각자는 자기 경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 때문에 피해라고 생각한다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주로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어떤 계기에서 이것이 극복되거나 변화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Q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씀이시죠?

A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정말 고통스럽나? 내가 정말 두려운가?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나?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요소가 뭘까?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뭘까?’ 자기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으면 성폭력을 바라보는 것, 대응하는 힘의 양이나 여러 간접 피해에 대한 대처능력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극복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는 피해자 스스로 자기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별로 열어두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 등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면하고 솔직하게 문제화하는 걸 막고 있어요. 치유되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틀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피해경험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히스테리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요. 각종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틀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성폭력이죠. ‘성폭력은 당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성폭력 보도와 그로 인한 성폭력통념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논리적 지형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연구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A 연구는 바쁘면 참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활동가 정체성을 조금 벗고 연구원 정체성으로, 쉬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할지 잘 모르겠어요.(웃음) 성과가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죠.

까르르 웃음, 도닥도닥 쓰다듬과 함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인숙 연구소장님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개소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을 응원하며 지켜봐주세요.

{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학교 선배, 후배 총 3명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제가 술이 많이 약해서 금방 취했거든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옆에는 A선배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대충 제 옷을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A선배에게 집으로 먼저 가니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다음날 A선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잘 들어갔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술에 취한 나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제가 모텔에 가자고 했다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따르던 선배여서 사과만 받으면 없었던 일로 묻고 싶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A선배의 태도를 참지 못해 고소를 했고, 어제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A선배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있는 앞에서 재판을 하던데, 저는 부모님께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국민 참여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From, 여의〉

A 안녕하세요. 여의님. 작년 10월에 있었던 피해경험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연락까지 받으셨네요. 국민참여재판이 많은 배심원 앞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정보에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때 염두 할 사항과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 문득 떠오른 질문

국민참여재판은 왜 도입된 걸까요?

2007년 4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배심원은 배심평결의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에 관할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선입견이 최소화된 평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인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님 사례처럼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왜 가해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까요?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2배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면 안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죄율이 높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일간지를 통해 공개된 대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평결한 사례가 전체 수치의 절반을 넘었고요. 그런데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더라도, 상황설명에서의 진술번복을 근거로 피해자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은 상담소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해자들이 악용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성폭력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게 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국민참여재판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선입견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성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인식, 태도가 없는 사회문화 속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통념대로 평결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앞서 지적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도 달리 본다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몸체에 대한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배심원이라면 너무나 쉽게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평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관할 지역 주민들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게 되다보니 지역 소도시인 경우 피해자가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신청했다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래서 문의를 해주신 여의님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여의님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재판부가 여의님을 설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이 좀 더 구체화 되도록 법개정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문득 떠오른 질문

여의님이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성폭력 피해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기억일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아닌 바로 여의님입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 또는 증인진술을 하러 재판에 가게 된다면 수많은 배심원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여의님이 아니라 가해자가 아닐까요. 쉽지 않겠지만 저희와 같은 상담기관에서 재판 당일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문제점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상담소에서도 열심히 관련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From, 란〉

{ 수박을 달았다 }

은수 | 본 상담소 부설 열린터 생활인

2013년 열린터에서 진행한 성폭력치유회복 프로그램 중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만든 책의 내용 중 한 편을 실었습니다.

☙ “야! 그만 쳐자!”

눈을 떴다.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난다. 현실인가보다. 꿈속에서 동생과 풍선을 타고 놀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빠의 고함이 더욱 크게 들려온다. 어제 두들겨 맞은 탓인지 온몸에 감각이 없는 듯하다. 이불에서 겨우 나온 다음, 화장실로 갔다. 아빠는 TV를 보며 웃고 있다. 눈이 마주칠까봐 눈을 내리깔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본다.

반쯤 풀린 눈에 입꼬리가 축 쳐져 있다. 애써 웃어보려고 입꼬리를 손으로 올려본다. 나는 거실로 나가고 싶지 않아 화장실 문고리만 하염없이 보고 있다. “은수야 밥 먹어.” 엄마가 나를 부른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아빠는 이미 수저를 들고 밥을 먹고 있었고 동생은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아빠 앞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밥상 앞에 앉는다. 수



<우리 집에는 인간으로 둔갑한 괴물이 살고 있어요.>

저를 들고 밥을 보니 내가 싫어하는 콩밥이었다. 원래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아빠가 억지로 먹이고 나서는 콩밥이 너무나 싫었다. 수저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 ‘먹지 않으면 나는 아빠에게 죽는다.’ 라는 생각에 밥을 억지로 입에다 구겨 넣는다. 구역질한다. “야 이년아 미쳤냐?”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다. 동생은 나를 힐끔 쳐다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한다.

식사를 먼저 마친 아빠는 밥그릇에 물을 가득 따르고 물을 들이킨다. “꺼억”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제야 나는 밥을 편하게 먹는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아빠는 장사를 안 간다. 나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싫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일기예보 언니들이 뭍기까지 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아빠와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항상 내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생각이었다. 밥을 다 먹은 나는 최대한 아빠한테서 떨어지기 위해 내 방에서 책을 폈다. 나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 머리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빠는 내게 말했다.

“그 머리로 무엇을 하겠냐? 미친년아. 그냥 공장에서 일이나 해.”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그냥 공부라는 것은 덜 맞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나는 아무렇게 펼쳐져 있는 책에 낙서한다. 동생은 내 옆에서 낙서를 보면서 해맑게 웃어 보인다. 동생 눈에 그들이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 일 때문인지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같다. 어제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안아주었는데 소용이 없는 거 같아 보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 공부하는 ‘척’을 하였다. 아빠는 우리 장난을 눈치를 챘는지 내 머리와 동생 머리를 사정없이 갈겼다. “닥치라고 쌍년아.” 난 이 상황을 매번 겪는 일이지만 고통은 배로 늘어가는 듯했다. 나는 귀가 차라리 안 들렸으면 했고, 내 눈이 보이지 않길 바랐었고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무서운 눈으로 나를 볼 때부터.

아빠는 집에선 왕이었다. 왕보다는 링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격투기 선수가 적절하겠다. 아빠가 싸우는 경기에선 심판도 없고 규칙도 없었다. 아빠가 곧 심판이었고, 아빠가 곧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몇 대 맞고 욕을 한참 듣고 나서 아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아빠가 이렇게 다녀가면 내 몸은 힘이 빠져버린다. 안방에선 아빠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거 같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남의 집에 온 것 같다. 아빠가 우리를 부른다.

“과일 먹어.” 평소 같았으면 먹이기도 아까워했을 텐데 오늘따라 아빠가 친절을 베푼다. 오랜만에 먹는 과일이라 맛있긴 한데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친절한 데 이유가 있을 거 같아 아빠 얼굴과 잘라 놓은 수박을 번갈아보며 수박을 먹는다.

수박이 오늘따라 참 달게 느껴진다.



2013 하반기 열린터 다이어리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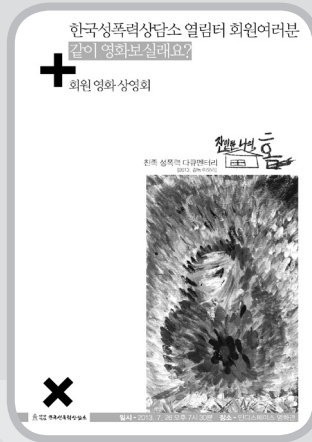
안티핵폭력 다큐멘터리 '잔인한 나의, 훔' 상영회

열린터 생활인이었던 돌고래가 출연한 '잔인한 나의, 훔' 상영회로 열린터와 상담소를 후원하고 아끼는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와 열린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8월

여름캠프 '곰배령' + 아름다운가게 봉은사점 과 함께 하는 바자회

뜨거운 여름, 공정무역여행사 트레블러스맵의 안내를 받아 강원도 곰배령으로 1박 2일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열린터 생활인들이 도심을 벗어나 산과 계곡 속에서 심신을 안정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봉은사점에서 후원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열린터 입·퇴소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후원물품을 모아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자회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 7-12 Diary



9월, 10월

성교육, 진로적성 발표회

생활인들이 두세 달 동안 참여한 성교육, 진로적성탐색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를 통해 생활인들이 느낀 바를 열림터 활동가와 생활인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성 통념의 변화를 경험했고 진로적성 탐색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열림터 겨울나기

서울화력발전소의 후원으로 열림터의 부서진 계단을 공사하였습니다. 열림터 계단이 튼튼해진 덕분에 이제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인들이 한 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겨울점퍼 장만에도 아낌 없이 후원을 해주셔서 올해 열림터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을 맞아 김장김치와 크고 작은 후원물품을 보내 주시는 소중한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예비의료인을 만나다

정희 | 본 상담소 부설 올림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성 예비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내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행하고,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부설 연구소 올림이 교육을 담당했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각 7시간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기획했다. 한정된 시간으로 기획할 수밖에 없어서 내용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졸업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강사를 섭외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측에 보내고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신청자 명단을 기다렸다. 예측과는 달리 신청자가 많지 않아 초반에는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도 예상했던 인원이 채워져 프로그램 진행 이틀 전에 최종 명단을 받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다. 교육을 하루 앞두고 수료증과 명단을 만들며 어떤 예비의료인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다.

11월 2일, 드디어 기다리던 교육이 시작되었다. 30분 전에 도착한 참여자도 있었고, 지각이 거의 없이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수업을 기다렸다. 박차민정 님의 “‘여성다운’ 섹슈얼리티 다시 생각하기”, 김보화 님의 “현대사회 성적 친밀함 사랑 동거 결혼 그

리고 의사소통”, 김백애라 님의 “성폭력과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었다.



11월 3일 진행된 성폭력에 방교육은 권인숙 님의 “여대생 성폭력 두려움”, 여성주의 상담팀 란 활동가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지원체계와 성폭력 유형 이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의료지원팀 장세연 님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앞의 두 강의에서 성폭력피해자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해 인식했다면 마지막 강의는 예비의료인인 참여자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만났을 때 필요한 의료인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교육담당자로서는 매순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수업에서 성과 성폭력에 관한 언어들에 어려워하는 참여자를 보면서 반성폭력운동의 언어가 대중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새삼 생각해보기도 했다.

교육이 끝나고 참여자들이 작성한 강의평가서는 ‘여성,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됨’,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음’, ‘성적인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힘이 생긴 것 같음’, ‘개인의 의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간호사가 되어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간호사의 역량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자리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뜻 깊었음’ 등 생각의 변화가 드러나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짧은 수업시간이었지만 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닫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예비의료인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아서 매우 흐뭇했다. 자기방어훈련 실습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과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견 등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담긴 참여자들의 후기를 보며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틀에 걸쳐 약 80명의 예비의료인을 만났다.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 한 명 한 명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의료인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나고,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이들이 앞으로 의료인이 되어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의료현장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성폭력에 맞서고자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언제, 어디에서 참여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짧은 인연이 참여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반성폭력인식 확산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 정희 / '禱禧' 상서로운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 믿고 겁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 

나눔터73호의 <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를 기억하시나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마세소의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기획해보았습니다.
더욱 극한상황, 마스터셰프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요리대결,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 과연 마스터셰프는 누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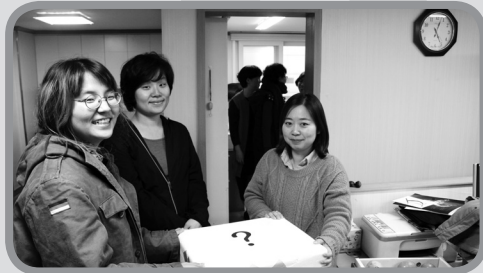
1

상담소가 유난히 분주한 어느 날, 수상한 스티로폼박스 하나가 등장했군요. 이것은 바로,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를 위한 미스터리박스! 전 시즌 우승자 요리 활동가가 준비했는데요, 물음표로 겉면을 꾸며 한껏 신비함을 더한 모습이군요!



2

도전자 맥주와 오레이 미스터리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요리 활동가가 심사숙고한 바로 그 주재료는 무엇일까요? 오후 7시 정각에 공개합니다!



3

이걸 수가, 주재료는 살짝 냉동된 백설기!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상담소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떡입니다. 해동만 잘하면 갓 쪄낸 떡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백설기 해동은 요리 활동가가 맡아줄 테니 영려 말고 두 도전자는 상담소 공식 패트리 '합정마트'로 이동합니다! 고민이 깊은 맥주 도전자는 '백설기에 박힌 것이 콩이었나요, 딸이었나요?' 침착하게 기억을 되살리는군요. 도전자들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4

각각 4,000원으로 10분간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요!



5

두 도전자는 4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주재료
백설기 한 덩이로 요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모두
의 임무가 까다로운 국한상황인 만큼, 상담소 활동가
들의 만성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요리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부엌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맛있는 냄
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두 도전자는 어떤 요
리를 만들어낼까요?

6

약속된 시각이 다가올수록 심사위원들의 뱃속도 꼬
르륵 울리기 시작합니다! 심사위원의 신경이 예민해
지면 두 도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아,
먼저 요리를 끝내 오렷 도전자가 맥주 도전자의 음
식 점수도 날라 주는군요, 잠시 경쟁을 잊은 아름다
운 동료애입니다! 점수를 상에 올리자마자 줌주린
심사위원 13인의 격렬한 요리심사가 시작됩니다!



7

오렛의 '카렛' 오렛 도전자는 보인이 좋아하고 즐겨먹는 토마토카레를 한 가득 끓여 먹기 좋게 썬 백설기 위에 올려서 냅습니다. 신선한 모양과 식감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재료로 13인이 넉넉히 먹고도 남은 만큼의 카레를 끓여내 '기적'에 감탄합니다.

맥주의 '맥주안주' 맥주 도전자는 야채햄, 느타리버섯, 맛살, 해물두부, 백설기를 각각 계란을 익혀 부쳐내고 구운 파프리카와 꼬치형태로 썬 채소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뜨거웠지만 플레이팅은 훌륭합니다. 백설기에 족족한 계란옷을 입힌다는 발상이 충격적입니다! 다만 음식의 양이 다소 부족했는데요, '카렛'에 비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8

13인의 활동가 심사위원단이 엄격하게 투표합니다. 각자의 글씨체가 란도 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더욱 신경 쓴 새로운 투표용지가 심사위원들 각 장씩 발부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의 우승자가 될까요? 우승자는 상담소의 마스터셰프가 되며 놀라운 쿠폰이 주어집니다.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9

짜짜짜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의 우승은 근소한 표 차이로 맥주 도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자에게는 "버블티 또는 맥주 400cc 제공 쿠폰"이 주어집니다. 준우승 오렛 도전자에게도 "정식당번 1회 제공 쿠폰"이 주어졌습니다. 정식당번 제공 쿠폰을 사용하면, 업무가 과중한 날에 나눔터 담당 활동가가 설거지를 대신 하므로 점심시간 30분이 확보됩니다!



두 활동가 모두 축하드립니다. '카렛'과 '맥주안주'로 상담소 활동가들 모두의 만성피로가 풀려서 더욱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맥주와 오렛 두 도전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3>에서 다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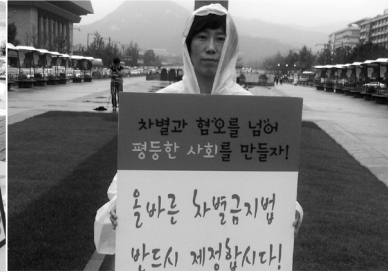
{2013년 7월~12월 활동}

- 7/1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여성계 기자회견 참석
- 7/2 서울시 여성주간기념 행사 참석
- 7/8 여성가족부 시설편개(상담소)
- 7/9 서울시 마포구 제18회 여성주간기념 행사
- 7/10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방안 토론회 참석
- 7/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1인 시위
- 7/15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미래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참석
- 7/15 여성주의상담 슈퍼비전
- 7/16 여성가족부 시설편개(열린터)
- 7/23-24 상권활동가 워크숍
- 7/26 회원행사 <진인한 나의, 흥> 상영회
- 7/29 상담소 대청소

- 8/10 (재)국제여성가족교육재단 초청 방글라데시 여성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내방
- 8/13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집담회
- 8/20~11/18 시민교육 프로그램 '반성폭력 감수성 인문학으로 소통하기'
- 8/22 성소수자 4대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발언

- 9/3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 이사회
- 9/4-5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워크숍 및 이사회
- 9/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숍 참석
- 9/25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네트워크 성폭력 부문 간담회
- 9/26 서울시립 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 개관식

- 10/4 희망재단 연계 버마 활동가 내방
- 10/5 LGBT상담커퍼런스 '젠더의 프레임을 깨다' 참석
- 10/15 함께일하는재단 연계 버마 여성단체활동가 내방
- 10/16 부설 연구소 '울림' 내부 개소식
- 10/21 (밀양으로 떠나는) 여성들의 희망버스 참가
- 10/21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오픈 포럼 참석





10/24 '2013시민교육심포지엄 : 한국 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참석
 10/25 10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지금'
 10/26 장애여성공감 15주년 기념식 참석
 10/3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추방주간기념 작은 토론회 참석
 10/30 장애여성공감 15주년 기념 정책포럼 '불편한 대화' 참석



11/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식 참석
 11/1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생존자 글쓰기 치유워크숍 북토크쇼 '굿바이 회전목마' 진행
 11/19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 이사회
 11/19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주최 '교차하는 여성,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성매매 성폭력 간담회'
 11/23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남부여성문화체 참관
 11/26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하반기 평가회의



12/05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복지시설 정책토론회

12/06 한국여성재단 후원회 참석

12/10 마포구청 지도점검

12/10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발간

12/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반차별 선언, 모여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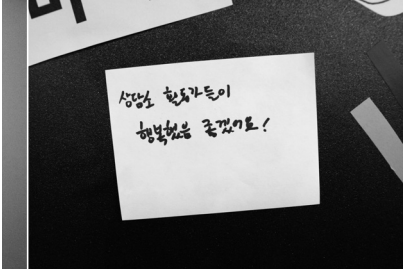
12/12~14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활동계획 워크숍

12/18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발표

12/18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토론회 참석

12/19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2014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석

12/23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



<작은 말하기>

7/31, 8/28, 9/25, 10/30, 11/27

<욕망찾기>

7/4, 7/11, 7/13, 7/18, 7/25



**회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더욱 튼튼해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 본 상담소 소장

부설기관인 열림터를 제외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3년 수입 구조를 보면, 회비와 후원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일반기부금의 비중은 약 15%입니다. 활동가들의 강사료나 회의참석 수당으로 마련하는 특강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하는 공개강좌의 등록회비 등은 대략 20%입니다. 그 밖에 정부나 재단 등의 프로젝트 수입이 약 13%, 상담소의 운영과 피해자 치료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약 22%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살림에서 회원, 활동가, 일반기부자들에 의한 수입이 약 65% 정도이고, 정부나 재단 등 외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은 35%입니다.

일반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의 일회적인 기부와 일일호프처럼 내부 기획에 의해 모금되는 것으로 일회적인 기부이고 수입의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GO가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적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졌고 정부가 정당한 모금 여부 심사 등을 명목으로 기부금 모집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서 모금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꼭 필요한 활동을 여성주의적 상상력에 따라 재미나고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수입구조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 100%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을 확대하는 것이며 긴급하계는 정부지원금 등의 35%부터 회비로 대체해가야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5

천만 원 정도인데, 월 1만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1,250명을 확대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약 1,200여명인 회원 1인당 1명씩 회원을 더 모집하고 가능한 회원이 두어 명을 더 모집하게 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정부지원금 의존율 0%를 공언하면서, 회원배가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이웃 시민단체들을 더 이상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더는 미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20여 년 전 제정되었던 성폭력특별법은 당시의 형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국가책임이라는 두 축을 담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는 상담소나 쉼터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일부 지원은 이러한 법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이었습니다. 민간 상담소와 쉼터 운영비 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것이 효율적인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소의 입장에서 운영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상황은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정부가 규정하는 틀에 맞추어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다른 관점에서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주의적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정책은 본질적 개선을 외면할 때가 많은데, 정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입장을 표명하거나 활동을 펼칠 때 자의견 타의견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사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온갖 행정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점차 반성폭력을 위해 필요한 일보다 규정에 맞는 일을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들은 그에 부수되는 행정적인 실무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다보니 상담소들을 무슨 산하 단체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반성폭력의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할 여력은 적어집니다.

성폭력상담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성폭력지원시스템의 제도화 성과를 활용하되 그에 매몰되지 않고 활동의 독립성과 운동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구조는 우리 상담소가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바꿔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작업과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근본적 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입구조보다 회비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60명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13년 12월, 회원은 약 12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회원은 87%이고, 이 중 5년 이상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회원은 60%입니다. 이러 저러한 연유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번 인연을 맺은 회원이 변함없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소를 지켜온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가로 일한다는 것은, 이러한 회원들의 후원과 기대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며 이에 부합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책무를 무겁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거움은 어깨를 짓누르는 버거움은 아닙니다. 여성주의 반성폭력운동은 성별에 의한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활동가들은 이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입니다. 회원은 그 일을 해나가면서 만나는 최고의 동지이며 든든한 힘이므로, 회원들의 기대는 애정을 확인하는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회원을 확대하거나 회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주 서툴렀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저희들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분들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공작 회원님이 후원해주신 요구르트와 꿀
 날개 회원님이 후원해주신 화장품
 미소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한가득 빵과 초콜릿
 용기님이 보내주신 고구마
 이경환 자문위원님이 보내주신 새콤달콤 골드키위
 이미경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복숭아와 포도, 피자
 이윤상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사과, 피자
 조은희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자두와 맛있는 복숭아
 조인섭 자문위원님이 추석선물로 후원해주신 와인
 피오나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쿠키와 커피, 핸드드린
 피해생존자님이 직접 쓰신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사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후원해주신 백설기
 법무법인 원에서 후원해주신 김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후원해주신 아이스크림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후원해주신 굴과 김치
 흥성사에서 후원해주신 송편떡

상담소 서버를 지원해주신 ㈜스마일서브
 바자회 물품을 후원해주신 익명의 후원자님들
 상담소의 빈 구석을 채워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

{열림터}

김미순님이 보내주신 감자와 굴, 김치
 김은영님이 보내주신 김
 김지은님이 보내주신 단호박
 미소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쌀
 민들레님이 보내주신 의류와 생활용품
 박선정님이 보내주신 쌀과 사과, 먹거리들
 우광제 회원님이 후원해주신 갈비
 이경환 자문위원님이 보내주신 새콤달콤 골드키위
 이경희님, 한정화님이 보내주신 옷
 이윤상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사과
 조지혜님이 보내주신 책
 피오나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쌀과 식료품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후원해주신 의류와 생필품
 법무법인 원에서 후원해주신 김치
 서서울농협에서 후원해주신 김치
 서울화력발전소에서 후원해주신 전통시장상품권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보내주신 생활용품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보내주신 물품

상담소와 열림터를 방역해주신 KT&G복지재단
 열림터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한의사 도희님



{울림}

최영애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프린터
 마도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연필꽃이
 김두나 객원연구위원님이 후원해주신 휴지통
 김정혜 객원연구위원님이 후원해주신 복사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오신 후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지, 강버들, 강영인, 강정원, 강푸른, 고진, 김나영, 김수진, 김종용, 김지찬, 김진욱, 김하나, 김호겸, 김희정, 나신, 나윤경, 등진효, 박상욱, 박종주, 박지아, 박지현, 방이슬, 백혜랑, 심지원, 양무현, 양진선, 우광재, 이근정, 이정미, 이동화, 이병례, 이복희, 이태호, 임현정, 전세화, 전영미, 정경자, 정병훈, 조순경, 최영숙, 최윤정, 한지숙

201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가람, 강광내,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미연, 강민희, 강버들,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인, 강영화, 강은주, 강인화, 강정원, 강희희, 강지이,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정남, 고정삼, 고진, 고화정, 고효주, 곽경화, 곽옥미, 곽윤이, 곽재호, 곽현지, 구민지, 구민희, 구본준, 권기욱,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생이, 권소영, 권은숙,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김현영, 기푸름,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훈,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나현, 김다미, 김다은, 김대근, 김대숙, 김도홍, 김동래, 김동현, 김동희, 김들순, 김명숙, 김보래, 김문민, 김문찬,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주,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셋별, 김서화, 김선경, 김선미,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중, 김세훈,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아름, 김아리,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정,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숙, 김영진, 김영성,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용백, 김우희,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은경, 김은아, 김은하, 김은혜, 김은진, 김의창, 김이슬, 김인숙, 김일륜, 김재운, 김재훈, 김경수, 김정완, 김정혜, 김종수, 김중용, 김종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숙, 김진욱, 김차연, 김채주, 김탁환, 김태설, 김택진, 김하나, 김하정, 김한상, 김한선혜, 김혜경, 김현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숙, 김혜수,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호겸, 김화숙, 김화영,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정, 나경미, 나미나, 나선영, 나선일, 나신, 나유미, 나윤경,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경, 노경란, 노길숙, 노미선, 노보람,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더트리그룹(주), 도병욱, 도상금, 등진효, 라길자, 라미체피부과, 류란, 류종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재연,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수영, 문지영, 문희영, 민정원, 박경옥, 박경훈, 바다위, 박명숙, 박명식,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욱,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인기,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주,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희, 박혜진,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계, 방이슬,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백명숙, 백미순, 백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지선, 백지훈, 백진현, 백현, 백혜랑, 법무법인 원, 변계희, 변순임,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범원, 서복련,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정희,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손, 선희갑, 성길성, 성나리, 성지은, 소희, 손경이, 손기주, 손동희, 손명화, 손미연, 손정혜, 손희정,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희선, 송호균, 슌, 승명석, 신겸우, 신경혜,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선에, 신성용, 신원재, 신은영,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종필, 신지혜, 신현정, 신현주, 신희승, 심소영, 심수희, 심지원, 심진심,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조룡, 안하영, 안행운, 안효선, 안효진, 안홍자, 양무현, 양미초, 양민희, 양성욱, 양수안나, 양애경, 양우준,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진선, 양창수,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광수, 오미근, 오선근, 오선호, 오세희, 오송환, 오승민, 오승이, 오유선, 오정진, 오정희, 오지연, 오진아,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안,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결, 유경희, 유계욱, 유배숙, 유상열, 유선욱, 유선원, 유세정, 유숙조, 유여연, 유예리, 유정호, 유지혜, 유혜숙, 유현광, 유현숙, 육상근, 윤나래, 윤다림, 윤소정,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희, 윤용미, 윤은정,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종옥, 윤준섭, 윤지원, 윤희영, 음선화, 이경진,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은,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화, 이름,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미경, 이민정, 이민휘, 이병례, 이병주, 이보라, 이보윤, 이복희, 이부덕, 이사랑, 이상근, 이상연,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 이새롬, 이서지, 이선영, 이성수, 이성아, 이성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송이, 이수안, 이수연, 이수용, 이승구, 이승선, 이승숙, 이승은, 이승진, 이안,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란, 이영미,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육영, 이원수, 이원홍, 이유평, 이유평, 이윤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비, 이은심, 이은영, 이은주,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 이재순, 이재원, 이정미, 이정봉,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충원, 이태호, 이한종태, 이혜사랑, 이향심, 이향화, 이현숙, 이현희, 이혜경, 이혜정, 이혜진,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화자, 이희경,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유청,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현정, 임홍실, 임희윤, 임재모랑코리아,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예지,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익수, 장재운, 장정희, 장중순, 장진, 장혜란, 장효정, 재단법인 동천, 전통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보인, 전세화, 전승기, 전아람, 전연애, 전영미,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구민, 정귀원, 정다희, 정대근, 정동연, 정두영,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병훈, 정보람, 정복련, 정세원, 정숙경, 정순희, 정슬아, 정영진, 정영석,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윤정, 정은선, 정정기,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수, 정지현, 정지훈, 정진숙, 정창수, 정현, 정현주,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순경, 조영선, 조윤경, 조윤주,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종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아, 조혜민, 조혜진, 존타클립, 주리아, 주병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선, 지현우, 진새롬,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승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강현, 최경식, 최광락, 최광수, 최광희, 최대용, 최동석, 최명숙,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신아,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수희, 최시연, 최신혜, 최연순, 최영숙,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유득, 최유영,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민, 최정희, 최지너, 최지영,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혜인, 훈옥, 코니, 토란어린이집,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랑마음, 펜디코리아, 하연수, 하은주, 하중석, 하주선, 하주현, 하진옥, 한경아, 한계영, 한국아마자키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석규,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정, 한진부녀회, 한지숙, 한재윤, 한희정, 함경진,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은주, 허이화, 허정연, 허정익, 허효정, 홍난영,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숙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보선경, 황성기, 황성임, 황유나, 황은순, 황재호, 황정임,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삼화, 김선영, 김소연, 김예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김희정,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티,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인필, 박지민(주) 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송은숙, 송미현,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심공채, 안백련, 안지혜, 안채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성,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등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성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윤희, 이유평, 이정수, 이혜정,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 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휘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숙, 최영애, 최정순, 한국윌테크, 한지숙,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